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Vol. 1. No. 1 (2024) pp.001~034

개념적 혼성과 한국 수어의 양태*

정 해 권
(조선대학교)

Jeong, Haegwon. 2024. Conceptual Blending and Modality of Korean Sign Language.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1*(1), 1-34. Modality represents the speaker's evaluation of the proposition expressed in a sentence, and modality is classified three basic types into dynamic modality, deontic modality, and epistemic modality. In Korean Sign Language, dynamic modality is expressed as [CAN], and obligation, permission, and prohibition of deontic modality are expressed as [NEED], [BECOME], and [MUST-NOT (not-become)], respectively. The epistemic modality is [RIGHT], [PROBABLY], [ONE-OF-TWO], which represents the speaker's assessment of the potentiality of a state of affairs. In the process of meaning construction, conceptual blending theory can explain additional emergent meaning by blending of input spaces, and the interpretation of sign language could be explained through a blending of Event Space and Real Space. So an epistemic modal expression in KSL processes two steps of conceptual blending. In the first blend, a proposition is constructed based on Event Space and Real Space, and then this proposition is connected to a positive in two potentiality spaces, and these two positive and negative spaces and an assessment space are mapped into the blended space, which represents the epistemic assessment. Deontic modality goes through a more complex blending process than dynamic modality or epistemic modality, and the blended proposition of the first step is connected to a reality space. Two reality spaces, an assessment space, and an attitude space contribute to the speaker's decision to express an obligation or permission in the second step. (228 words)

Key Words: Korean Sign Language, Modality, Deontic Modality, Epistemic

* 한국 수어에 대해 도움을 주신 국립국어원의 서원희,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의 김현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Modality, Dynamic Modality, Conceptual Blending, Real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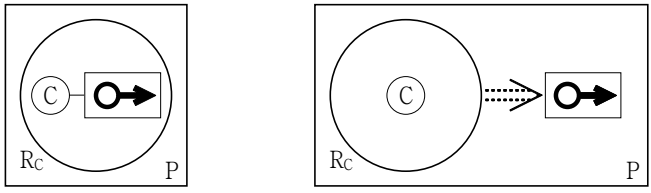
1. 들어가기

인간의 언어에서 존재론적 실체를 개념화하고 문장으로 표현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위계로 구분되기도 하는데(Cristofaro, 2005, p.110; Lyons, 1977, pp.442-446), 가장 일차원적인 물리적 개체는 존재 여부, 시공간상 위치, 개체의 속성 등을 나타내는 기본 층위에 해당하며, 이는 이차원적인 시공간상 개체에 의한 사태(state of affairs)를 서술하는 사태 층위와 구분된다. 또한 시공간을 벗어난 삼차원적인 상황에서 알거나 생각하는 명제(proposition) 내용을 화자의 사고 안에서 다루는 명제 층위와, 전체적 관점에서 적절성이 평가되는 화행을 언급하는 발화 층위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다.

(1) a. 집에 가**라**. (명령)
b. 난 네가 집에 가**기를 요구한**다. (수행 발화)
c. 넌 집에 가**야 해**. (양태)

발화 층위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또는 요구의 지시 화행(directive speech act)을 표현하기 위해 (1a)의 명령문을 사용하거나 (1b)의 수행 동사(performative verb)를 통해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나, (1c)와 같이 명제 층위에서 사회적 도덕성에 의거하여 화자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외부적으로 강제하는 힘을 청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1] 이처럼 문장으로 표현되는 사태나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판단, 의견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를 양태(modality)라고 하는데(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 2019, p.400; 박진호, 2011, p.310; Lyons, 1977, p.452), 이와 같은 주관적 판단은 본질적으로 정도성(gradience)이라는 속성을 내재하며 등급을 나타내게 된다(Radden & Dirven, 2007, p.239).

1) Bybee(1985, pp.165-166)과 같이 명령법을 서법 또는 양태의 하나로 보고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로 다루지 않는 입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령법은 문장 유형(sentence type)에 해당하므로 양태와 구별되는 문법 범주이다(Nuyts, 2016, p.3).



(a) 양태의 부재 (b) 양태의 표시

[그림 1] 양태의 부재와 표시(Langacker, 2008, p.449)

[그림 1]과 같이 화자가 명제에 대한 양태의 사용을 개념화하는 과정을 구분하면, 문장에 양태를 표시하지 않은 (a)와 같은 표현은 사태와 개념 화자(Conceptualizer)가 개념화된 현실(Conceived Reality)의 내부에 함께 수용되어 하나의 명제(Proposition)를 구성하지만, 양태가 표현된 (b)는 사태가 개념 화자의 개념 작용 외부에 존재하여 개념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사태의 정도성을 나타낸다. 즉, 양태는 사태 외부에서 개념 작용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문장이 [[명제] 양태]와 같이 양태가 명제를 둘러싸고 있는 층상 구조(層狀 構造)를 이룬다(윤병천·김칠관, 2022, p.253; 仁田(닛타), 1999, pp.34-35; Fillmore, 1968, pp.44-45).

(2) a. 비 오-∅-아요.
a'. [물] [내리다]
b. 비 오-ㄹ 거이-어요.
b'.



[물] [내리다] **[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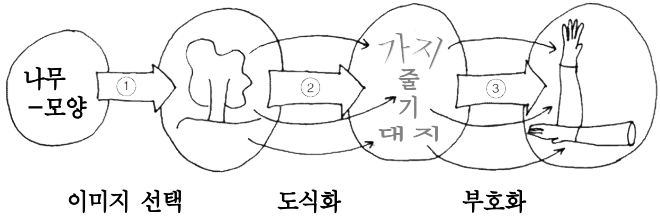
예를 들어, '비 오-'와 같은 사태에 대해 (2a-a')는 양태를 표시하지 않고 개념화된 명제를 나타낸 것이지만, (2b-b')처럼 한국어의 '-을 것이-'나 한국수어의 [아마]와 같은 양태 표지가 결합된 경우는 화자가 외부에서 판단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반영하여 표현한다.

(3) a. 영희가 책을 읽-고 있- 었 -을 거-야.
상 시제 양태

b. *George may have been drinking.*
George may have -en be -ing drink
양태 시제 상

c. [어제] [책] [읽다] [읽다] [아마]
(시제) 상 양태

한편 양태는 사태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화자의 판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문법 범주에 비해 동사 어근과 좀 더 멀리 결합하는 요소로 표시되기도 하는데(정해권, 2018, p.129; Bybee, 1985, p.4), (3a-b)의 한국어와 영어 문장에서 동사-상-시제-양태의 순서(영어는 반대)로 결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관련된 요소가 언어 구조에서도 밀접하게 결합한다는 근접성의 도상 원리(iconic principle of proximity)로 설명된다(Radden & Driven, 2007, p.173). (3c)의 한국수어도 [[(시제)-[동사-상]]-양태]와 같은 순서로 결합하여 양태가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뒤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어의 도상적 속성이 어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 측면에도 잘 드러남을 보여 준다(Taub, 2001,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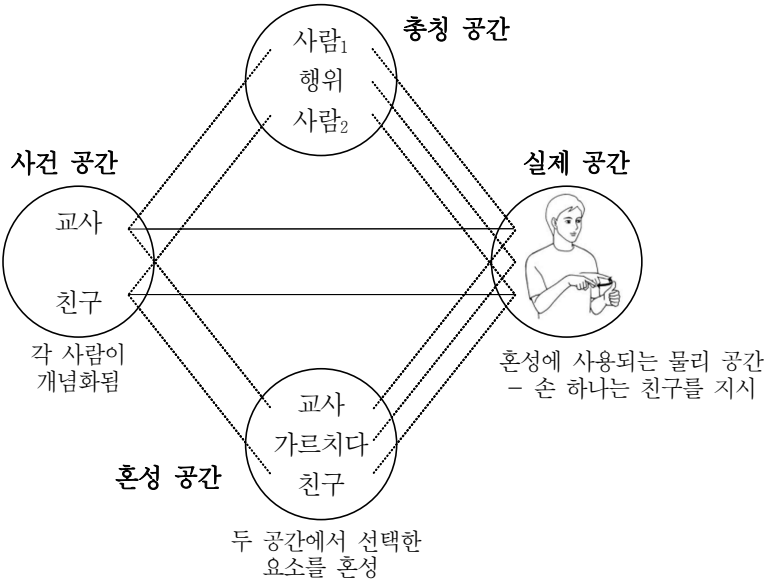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수어의 유사 구축 과정(Taub, 2001, p.44)

이런 도상성(iconicity)은 [그림 2]처럼 미국 수어의 [나무]에 대한 유사(analogue) 구축 과정을 유용하게 설명하는데, ① '나무'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원형적인 시각 이미지를 선택하고, ② 수어 범주에 맞게 도식화(schematization)한 다음, ③ 이미지를 부호화(endcoding)하며, 이 과정에서 작은 화살표는 구조가 유지되며 대응하는 도상적 속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3)과 같

은 양태 표시의 구조는 [그림 1]의 (b)에 대한 은유적 해석을 통해 명제(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라는 이미지 선택→도식화→부호화의 과정을 통해 표현되는 도상적 사상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어도 은유 및 도상성과 같은 인지 과정을 통해 도식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표현으로 부호화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장이나 담화의 의미는 개별 단어의 의미를 넘어 방대한 지식 목록에 대한 접근점(points of access)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인지 표상에 의해 촉진되고 일시적 개념 영역으로 구성된 정신 공간(mental space)을 바탕으로 의미 구성(meaning construction)이라는 동적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언어에서 부호화된 의미는 개념 구조의 부분이며 완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더 풍부한 패턴을 구성하는 촉진제(prompt)로 작용하고, 문장의 의미는 담화 맥락에 대한 정보의 안내를 받아 복합적 개념 처리에 의한 개념화(conceptualization)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성된다(Evans & Green, 2006, pp.363-367). 이와 같은 정신 공간과 개념적 은유에 의한 동적 의미 구성을 설명하는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은 개념적 은유나 개념적 환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지 작용의 하나이며 부분의 합 이상의 의미가 발현되는 구조를 통찰력 있게 설명한다(Fauconnier & Turner, 2002, p.35). 또한 청자가 음성 언어에 대해 의미 구성의 동적 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어 공간에서 전달되는 언어 표현도 정신 공간을 구축하며 개념적 혼성을 사용하여 이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Armstrong, 2011, p.2).



[그림 3] 수어 [선생님 친구 가르치다]의 혼성 공간 모형(Armstrong, 2011, p.44, 수정)

개념적 혼성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총칭 공간(generic space), 두 입력 공간(input space), 혼성 공간(blend space)이라는 네 공간 사이의 사상을 통해 의미 해석 과정을 설명하는데(Fauconnier & Turner, 2002, p.46), 수어를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적 혼성은 두 입력 공간 대신에 사건 공간(event space)과 실제 공간(real space)이 설정되는 [그림 3]과 같은 모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Armstrong, 2011, p.44).[2] 특히 수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실제 공간은 물리적 위치, 몸짓(gesture)과 같은 요소들을 가진 토대화 기반 정신 공간에 해당하는데, 실제 공간이 입력 공간의 하나로 형성된 혼성은 토대화 기반 혼성(grounded blend)이라 한다(임지룡, 2024, p.27; Dudis, 2004, p.223; Liddell, 1998, pp.290-291).[3] 실제 공간이 중요한 것은 수어 화자가 발화하는 내용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토대화 기반 혼성을 통해 개념적으로 존재하도록 만들기

2) Sherman Wilcox(p.c.)는 수어의 혼성 공간 모형에서 지칭되는 실제 공간이 수어 조음 공간에 대응하는 용어라고 설명하였다.

3) 매일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공간과 같은 물리적 실체에 개념을 부여하는 정신 공간을 토대화 기반 정신 공간(grounded mental space)이라고 한다(Liddell, 1995, p.22).

때문이다. 즉, 수어에서도 기본적으로 문법 구문에 의해 추상적인 의미들을 전달하지만 이는 일부 불완전한 정보일 뿐이며, 수지의 위치와 방향이 부가하는 정보는 혼성을 통해 추론적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다(Liddell, 1998, pp.293-296).

이처럼 수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개념적 혼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양태 또한 표현되는 내용 외부에서 작용하는 개념 화자의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문장으로 표현되는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과정에서 개념적 혼성에 의한 인지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한국 수어에서 양태 표현은 기본적으로 개념적 혼성이라는 인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한국 수어의 양태 체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인지 과정을 개념적 혼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명제와 양태

2.1. 양태의 정도성

화자가 표현하는 명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판단의 정도에 따라 이분법적 대립으로 표시하는 서법(mood)과 다양한 등급으로 나타내는 양태(modality) 체계를 갖는 언어로 구분되는데(Palmer, 2001, pp.4-7), 스페인어는 서실법(realis, 직설법)과 서상법(irrealis, 가정법)이 상보적인 필수 표지의 쌍으로 나타내지만 영어는 양태 동사(modal verb)와 같은 다양한 양태 표지를 통해 화자의 판단을 표시한다.[4] 한국어에서도 서술어와 결합하는 이원적 대립 체계로서의 서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남기심 외, 2019, p.401), 다양한 양태 표지들이 우언적 구성으로 나타나므로 양태 체계를 갖는 언어에 속하고, 한국 수어도 미국 수어나 일본 수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양태 표지를 갖는 언어에 해당한다(윤병천·김칠관, 2022, pp.252-255; Matsuoka, Yano & Maegawa, 2022, p.137; Wilcox · Shaffer, 2006, p.207).

4) 유럽 언어의 기술에서 서법은 동사에 표시되는 굴절 요소나 문장 유형을 지칭하기도 하였으나, 서법(mood)은 서실법/서상법의 이원적 대립 체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문장 서법(sentential mood)은 문장 유형(sentential type)이라는 용어로 정리되고 있다(Nuyts, 2016, p.2; Palmer, 2001, pp.4−7).

(4) a. *John is at home.*
a'. *John **may** be at home.*
a''. *John **must** be at home.*
b. 비가 와요.
b'. 비가 **올지도 몰라**요.
b''. 비가 **올 것 같**아요.

양태는 판단에 따른 정도성 차이를 나타내는데 언어에 따라 표현과 연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영어는 *may*, *must*, *will*와 같은 양태 조동사에 의해 다양한 정도성을 표현한다(Palmer, 2001, pp.5-6). 예를 들어 (4a)의 영어나 (4b)의 한국어는 양태가 표시되지 않은 문장이지만, (4a')의 *may*는 낮은 가능성(possibility), (4a'')의 *must*는 높은 확실성(certainty)을 표시하고, 한국어는 (4b'-b'')의 '-을지도 모르-, -을 것 같-'과 같은 우언적 구성을 통해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 등급을 드러내는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를 표현한다.

영어의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에서 [표 1]과 같이 *must*는 인간에 의해 요구되는 강한 강제성을 나타내고, 이보다 약한 의무는 *have to*에 의해 표현되는데 외부 환경의 힘에 호소하는 의미를 통해 강제성이 다소 약한 느낌을 준다.[5] 또한 *need to*는 사물 내부에서 나오는 요구와 관련되며, *will*은 인간의 내적 소원을 기술한다는 면에서 중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며, *should*나 *ought to*는 의무를 강요하기보다 행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는 것이므로 약한 강제성을 갖는다.

[표 1] 영어 당위 양태의 등급(Radden & Dirven, 2007, p.239)

강한 긍정 ↑	*You*	***must***	*go to bed.*
	You	***have to***	*go to bed.*
	You	***should***	*go to bed.*
	You	***are supposed to***	*go to bed.*
	You	***are allowed to***	*go to bed.*
	You	***may***	*go to bed.*
	You	***can***	*go to bed.*
부정 ↓	*You*	***mustn't***	*go to bed.*

5) Deontic modality는 의무 양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위 범주로 의무(obligation), 허락 등이 포함하므로 당위 양태라고 지칭한다(박진호, 2011, p.310).

그리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금지(prohibition)는 *mustn't*로 표시되는데, 힘에 의해 강요되는 강한 강제성을 의미한다(Radden & Dirven, 2007, pp.247-260).

이처럼 양태는 다양한 등급으로 구분되는 화자의 판단 정도를 표시한다.

2.2. 양태 유형과 체계

개별적인 양태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양태 체계와 그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Palmer(1986, pp.18-19, 2001, p.22)는 크게 명제(proposition) 양태와 사건(event) 양태로 구분하고 명제 양태의 하위 유형으로 인식(epistemic) 양태와 증거(evidential) 양태를 두고 사건 양태는 당위(deontic) 양태와 동적(dynamic) 양태로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였다.[6] 동적 양태와 당위 양태는 사건 발생의 조절 요인이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데, 동적 양태는 기본적으로 동작주 참여자인 제1논항이 사건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지만, 당위 양태는 주로 외부 권위와 관련되어 발화에 표현된 사태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정도를 나타낸다(Palmer, 2001, p.9-10).

[표 2] 양태 유형(van der Auwera & Plungian, 1998, p.82, 일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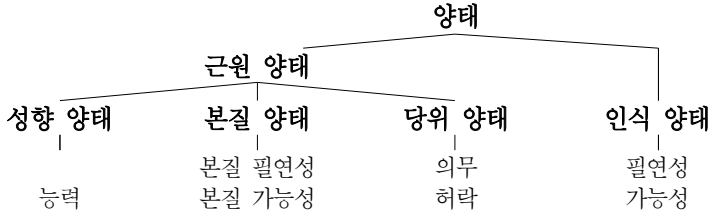
<table>
<tr><td colspan="4">가능성</td></tr>
<tr><td rowspan="2">참여자
내적 가능성</td><td colspan="2">참여자 외적 가능성</td><td rowspan="2">인식 가능성</td></tr>
<tr><td>非당위 가능성</td><td>당위 가능성</td></tr>
<tr><td rowspan="2">참여자
내적 필연성</td><td>非당위 필연성</td><td>당위 필연성</td><td rowspan="2">인식 필연성</td></tr>
<tr><td colspan="2">참여자 외적 필연성</td></tr>
<tr><td colspan="4">필연성</td></tr>
</table>

또한 van der Auwera & Plungian(1998, p.82)는 가능성(possibility)과 필연성(necessity)이라는 양태 의미가 참여자 외적(participant-external), 참여자 내적

6) 증거 양태는 정보 출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로 화자 판단과 관련이 없으므로 독립된 문법 범주인 증거성(evidentiality)으로 구별되며(Aikhenvald, 2004, p.3), 최근 연구에서는 양태 체계 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표지가 인식 양태와 간접 증거를 함께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양태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van der Auwera & Plungian, 1998, p.86)

(participant-internal), 당위(deontic), 인식(epistemic)이라는 영역에 나누어 분포한다고 보았다. 이때 증거를 양태의 하위 유형이라고 분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 외적 요인을 당위 양태로 본 Palmer(2001, p.22)와 달리 참여적 외적 양태를 당위 양태와 非당위(non-denotic) 양태로 구분하였고, Nuyts(2016, p.37)와 마찬가지로 의지(volution)를 양태 하위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양태의 하위 유형을 명제나 사건에 대한 판단 주체에 따라 동작주 지향(patient oriented) 양태, 화자 지향(speaker oriented) 양태, 인식 양태로 나누기도 하며(Bybee, Perkins & Pagliuca, 1994, pp.177-180), 한국어 양태에 대해 화·청자 지향 양태, 주어 지향 양태 등을 상정하기도 하지만(박재연, 2006, pp.53-57), 엄밀한 의미에서 양태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므로 정확한 분류 체계로 보기 어렵다(임동훈, 2008, p.226). 또한 일본 수어의 양태에 대해 살펴본 Matsuoka(2006, pp.45-47)는 일본어 양태에 대한 닛타(仁田/Nitta)(1989, p.41)의 논의를 근거로 명제 지향의 인식 양태, 상황 지향의 정의(情意, affective) 양태, 청자 지향의 의욕(conative) 양태로 구분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일본어 및 일본 수어에만 적용되는 언어 특정적인 분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양태의 기본 유형(Radden & Dirven, 2007, p.246)

그런데 Radden & Dirven(2007, p.233)은 [그림 4]와 같이 양태 유형을 크게 인식 양태와 근원 양태(rood modality)로 나누고 근원 양태(사건 양태)에 성향 양태(disposition modality), 본질 양태(intrinsic modality), 당위 양태를 두었는데, 이는 Palmer(2001, p.22)의 체계와 유사하다.[7] Nuyts(2016, p.33)는 일반적으로

7) 사람이나 사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내적 잠재력을 가리키는 성향 양태와 사물이나 환경의 본질적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본질 양태를 따로 구분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성향 양태와 본질 양태를 함께 동적 양태라고 부른다(Radden & Dirven, 2007, p.246).

통용되는 양태의 세 가지 기본 유형으로 동적 양태, 당위 양태, 인식 양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van der Auwera & Plungian(1998, p.82), Palmer(2001, p.22), Radden & Dirven(2007, p.246), 전문이(2020, p.102) 등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양태 유형에 해당한다.

한국어 양태와 관련하여 박진호(2011, pp.310-311)은 주로 다루어지는 양태의 하위 범주를 인식 양태, 당위 양태, 동적 양태와 함께 감정 양태와 증거 양태를 나열하면서, 증거 양태는 증거성에 속하여 양태 부류가 아님을 언급하였다(박진호, 2011, p.314).[8] 따라서 본고도 이와 같이 양태를 동적 양태, 당위 양태, 인식 양태로 구분하는 체계를 따라 한국 수어의 양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3. 한국어의 양태 유형

남기심 외(2019, p.402)는 Palmer(2001)의 양태 체계를 따라 한국어의 양태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논란이 되는 증거 양태(증거성)를 제외하면, Nuyts(2016, p.33)와 전문이(2020, p.102)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도 동적 양태, 당위 양태, 인식 양태로 구분된다. 동적 양태는 서술한 내용의 참여자가 사건의 실현시킬 능력이 있음을 특징짓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고, 당위 양태는 사회 규범이나 권위에 따라 행위를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화자의 평가 태도를 전달하며, 인식 양태는 사태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Nuyts, 2016, p.38). 한국어는 어미나 우언적 구성의 문법 요소를 통해 양태를 표현한다(박진호, 2011, pp.310-311, 318).

(5) a. 그 문제는 나도 풀**겠**다.
b. 아이도 그 짐을 **들 수 있**어요.
c. 민호는 수어를 **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 (5)의 '-겠-, -(으)ㄹ 수 있-, -(으)ㄹ 줄 알-'은 참여자에 의한 사건 발생 가능성과 관련되는 동적 양태를 표시하는데,[9] 특히 '-(으)ㄹ 줄 알/모르-'는

8)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감정(emotive/evaluative) 양태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양태에서 제외하는 입장이 다수이다. 한편 화자의 호불호를 나타내는 정감(boulomaic) 양태가 추가적으로 논의되기도 한다(Nuyts, 2016, p.39).

9) 동적 양태는 참여자가 가진 능력뿐만 아니라 상황에 의해 주어진 가능성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본질 양태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동적 양태의 하위로 볼 수도 있다

익힌 기술에 의한 능력의 정도를 표현한다.

(6) a.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b. 여기에 앉**아도 된**다.
c. 다시는 늦**으면 안 된**다.

또한 (6)의 '-어야 하-, -어도 되-, -으면 안 되-'는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성과 같이 참여자 외부와 관련하여 발화에 표현된 사태의 바람직한 정도로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당위 양태를 표시한다(정해권, 2018, p.136). 이처럼 당위 양태는 사회적 권위나 규칙에 대한 준수를 평가하는 데에서 기대되는 행위와 관련되므로 화자에게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힘이 있음을 전달한다. 한국어의 '-어야 하-, -어야 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의무(obligation)를 나타내고,[10] '-어도 되-, -어도 좋-'은 승인자가 요청자보다 힘이 세지만 요청자의 의지를 사용하도록 권위를 내려놓고 능력을 부여하는 허락(permission)를 표시하며, 금지의 의미는 '-(으)면 안 되-'로 나타낸다.

(7) a. 비가 **올지도 몰라**요.
b. 비가 **올 것 같**아요.
c. 비가 안 **올 리가 없**어요.
d. 내일 소풍 다 **갔**네요.

(7)의 '-(으)ㄹ 것 같-, -(으)ㄹ지도 모르-'는 화자가 지식이나 믿음에 근거하여 상황이나 사태의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 정도를 나타내는 인식 양태에 해당하는데, 이는 화자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도출되는 추론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으)ㄹ지도 모르-'는 매우 낮은 가능성(possibility)을 언급하지만 '-(으)ㄹ 것 같-, -(으)ㄹ 것이-, -겠-'은 중간 정도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개연성(probability)을 표시한다. 특히 일기예보와 같이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정인 경우에는 주로 '-겠-'이 쓰이는데, '-(으)ㄹ 리가 없-'는 부정 표현을 통해 확실성(certainty)을 나타내며, '-었-'은 주로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확실성을 표시한다.[11]

(Radden & Dirven, 2007, p.246).

10) 한국어 '-어야 하-'는 주관적/개인적으로 부여하는 의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의무도 나타내는 넓은 의미 범위를 갖는다.

이처럼 동적 양태, 당위 양태, 인식 양태로 구분되는 양태 체계는 한국어뿐 아니라 언어유형론적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체계이므로 한국 수어도 이와 같은 양태의 분류 체계를 따라 논의하는 것이 유용하다.

3. 개념적 혼성과 양태

3.1. 개념적 사상으로서의 개념적 혼성

언어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경험하는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 개념과 연결하거나 이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일이 빈번한데(Radden & Dirven, 2007, p.12), 이렇게 일상 언어를 이해하는 인지 과정에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과 같은 개념적 사상(conceptual mapping)이 중심적으로 작용한다(Fauconnier, 1997, pp.3-4, 12). 예를 들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는 표현은 개념적 은유인 [시간은 돈이다]를 바탕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처럼 일상 언어에서 개념적 은유를 통한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작용한다(Lakoff & Johnson, 1980, pp.3-8). 한편 개념적 환유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타내거나 부분을 전체로 나타내는 개념적 사상인데(Gibbs, 1994, p.319). 예를 들어 “네 손 좀 빌리자.”라는 말에서 실제로 요청하는 것은 ‘손’만이 아니고 손을 사용하는 ‘도움’으로 부분을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환유에 해당한다. 이처럼 개념적 환유는 실례(instance)라는 지시점(reference point)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인지적 사고 과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다(Evans & Green, 2006, p.155). 또한 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하면서 자주 넘어진 경험은 신체화에 의한 환유적 사고를 통해 [위는 좋은 것], [삐딱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개념화(conceptualization)를 형성하게 되므로, 개념적 환유는 언어 표현 이전에 더 근원적으로 개념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개념 영역에 대한 정신적 접근을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인간은 동적인 정신 공간(mental space)을 구축하며 의미를 구성해 가는데(Evans & Green, 2006, p.363), 정신 공간은 의미 구성의 자취를 밟아 가는

11) 한국어에서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의 사태에 대한 확실성을 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사태에 대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확실성을 표현하는 것은 건방지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인지 과정을 보여 준다(Stockwell, 2002, p.96). 그리고 동적인 의미 구성에 사용되는 정신 공간에 근거하여 개념적 혼성이 설명되는데, 몇몇 근원 범주의 요소에서 선택적으로 투사된 요소들이 통합(혼성)되어 특이한 내적 구조를 갖는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인지 과정을 가리킨다(Ungerer & Schmid, 2006, p.259). 즉, 개념적 은유나 개념적 환유가 다양한 의미 현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유용하지만, 부분의 합 이상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념적 혼성을 통해 그와 같은 인지 과정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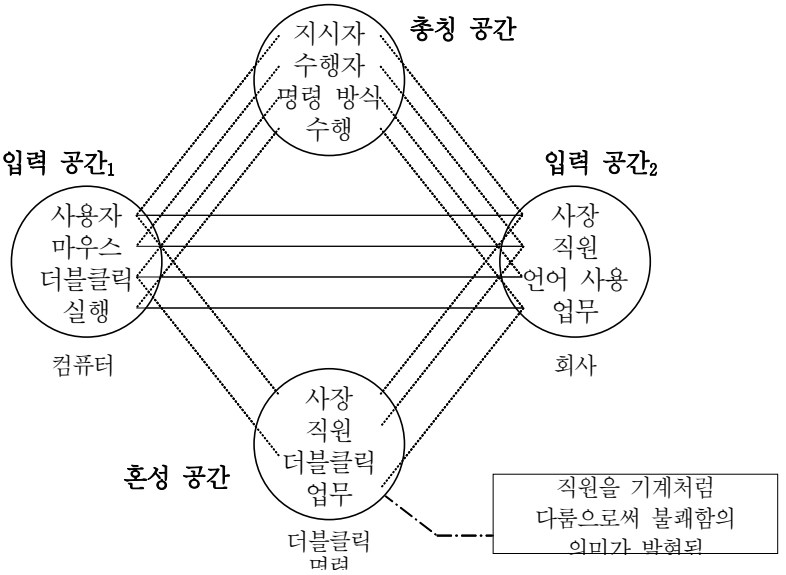
(8) a. 

(https://www.glasbergen.com/)

b. Whenever the boss wants me to do something, he double-clicks me. I hate technology!

"사장이 내게 어떤 일을 시킬 때마다 그는 나를 더블클릭한다. 나는 기술이 싫다!"

예를 들어 (8a)와 같은 만화 유머에 나타난 (8b)의 문장에서 '더블클릭'이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는 단순히 단어의 의미로 설명되지 않는데, 이렇게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현되는(emergent) 양상은 개념적 혼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동환, 2002, pp.246-249; Fauconnier & Turner, 2002, p.18).



[그림 5] "사장이 나를 더블클릭한다."의 개념적 혼성(김동환, 2002, pp.249, 수정)

[그림 5]는 이와 같은 개념적 혼성의 과정을 보여 주는데,[12] 총칭 공간은 지시자와 수행자 사이의 명령 방식과 그에 따른 수행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에 의한 틀 정보를 제공하고 '컴퓨터'와 '회사'라는 두 입력 공간 사이의 사상을 통해 혼성 공간에 선택적 투사가 이루어져 '기계처럼 다루어 명령함'이라는 혼성을 통해 '불쾌함'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새롭게 발현된다. 즉, 컴퓨터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듯 직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명령하는 모습이 통합되며 선택적으로 투사됨으로써 비합성적으로 발현되는 싫어함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구성된다.[13]

이와 같은 개념적 혼성은 다양한 문맥에서 수지 및 비수지로 표현되는 기호를 통해 발현되는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지 과정으로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양태 표현을 이해하는 과정도 문장에 표현되지 않은 화자의 판단 또는 태도라는 의미를 개념적 혼성을 통해 이해하므로 한국 수어의 양태 표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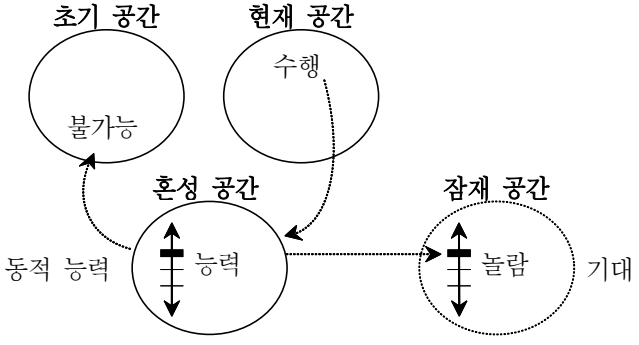
12) 그림에서 정신 공간은 원으로 표시되고 원 안의 점은 요소를 나타내는데, 요소 간의 관계는 선으로 연결한다(Fauconnier & Turner, 2002, p.40).

13) 이런 불쾌감은 "나는 기술이 싫다(I hate technology)!"라는 문장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기술'은 컴퓨터 기술(더블클릭)을 사용하는 사람을 환유적으로 가리킨다.

대한 개념적 혼성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이해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3.2. 양태의 개념적 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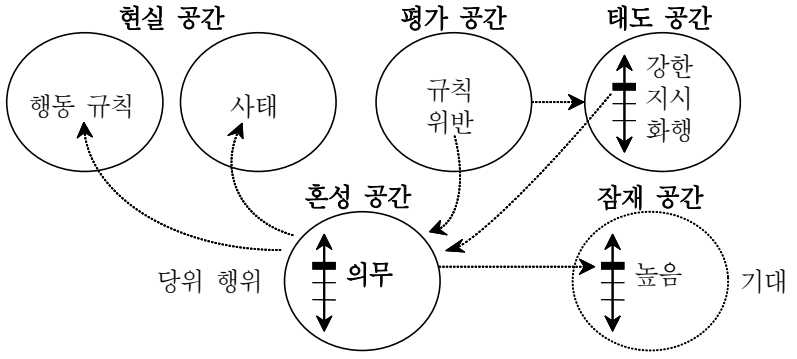
동적 양태, 당위 양태, 인식 양태는 모두 평가를 수반하지만, 각 유형에서 평가의 역할은 다르게 나타난다. 동적 양태는 참여자 능력에 의한 사태에 대해 평가하고, 당위 양태는 사회적 규범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준수로부터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며, 인식 양태는 현실에 대해 주어진 사태에 대한 화자의 평가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양태에 의해 표현되는 화자의 평가는 여러 정신 공간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개념적 혼성을 통해 이해되는데, 당위 양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의미 영역을 바탕으로 이해되므로 동적 양태나 인식 양태보다 더 복잡한 개념적 혼성 과정을 거칠 수 있다(Radden & Dirven, 2007, pp.235-237).



[그림 6] 동적 양태에 대한 개념적 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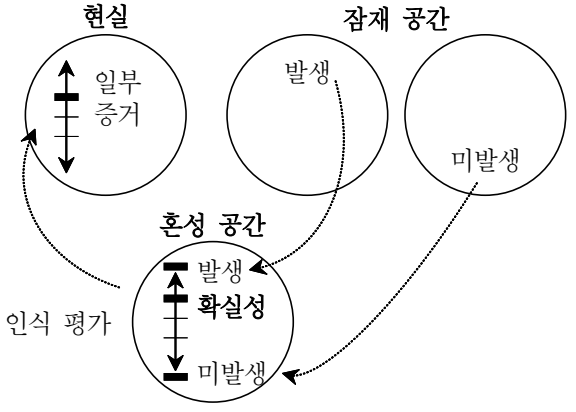
동적 양태를 나타내는 영어의 양태 동사 *can*은 화자가 실제로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 느끼거나 생각한 것에 의해 사건의 발생 가능한 것처럼 판단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can*은 세 가지 정신 공간을 유발하는 공간 건설자(space builder)로 화자가 사태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던 초기 공간과, 실제로 이전과 달리 수행을 경험하게 된 현실 공간이라는 두 공간에서 투사된 정보를 받아 동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혼성 공간에 의해 의미를 구성한다. 또한 특정한 문맥에서 이런 능력(ability)의 의미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이루어짐으로써 놀람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런 인지 과정도 개념적 혼성으

로 설명된다(Radden & Dirven, 2007, pp.257).



[그림 7] 당위 양태에 대한 개념적 혼성(Radden & Dirven, 2007, p.237)

당위 양태는 사회적 권위나 규칙에 대한 준수를 평가하는 데에서 기대되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명령문이나 수행 발화에 의한 지시 화행과 달리 [그림 7]과 같이 정신 공간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즉, 영어의 양태 동사 *must*에 의한 의무 표현은 행동 규칙과 사태를 나타내는 현실 공간, 사태의 규칙 위반을 평가하는 평가 공간, 강한 지시 화행을 요구하는 태도 공간으로 구성되어 혼성 공간에서 의무로 등급이 결정되고 잠재 공간에서 매우 높은 발생 가능성으로 기대되는 행위라는 의미를 발현한다. 즉, 화자의 판단으로 의무는 청자가 요구받는 행동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높은 가능성을 갖는다.



[그림 8] 인식 양태에 대한 개념적 혼성(Radden & Dirven, 2007, p.235)

인식 양태에서도 영어 양태 동사 *must*는 [그림 8]처럼 세 가지 정신 공간의 공간 건설자인데, 어떤 증거를 발견한 현실 공간, 발생을 가정하는 긍정적 잠재 공간, 미발생을 가정하는 부정적 잠재 공간의 요소들이 선택적으로 투사되어 입력 공간의 정보에 의한 인식 평가를 나타내는 혼성 공간 안에 의미를 구성한다. 사건 발생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주어지면 사건 발생과 미발생의 양극 사이의 척도에서 발생 가능성의 정도가 높게 평가되는데, 추론된 인식의 가장 높은 척도인 확실성(필연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인식 양태는 화자가 지식이나 믿음에 의거하여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평가에 의존하는 증거가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또 다른 문법 범주인 증거성(evidentiality)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와 같이 양태 표현은 명제 외부에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개념적 혼성에 의해 의미를 구성하는 성격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수어도 수지 및 비수지로 표현되는 의미와 더불어 문맥적으로 제공되는 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개념적으로 혼성되어 전체 의미를 채워 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수어의 양태는 개념적 혼성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한국 수어의 양태

4.1. 수어의 양태에 대한 연구

수어에 대한 양태 연구는 미국 수어의 양태 동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윤병천·김칠관, 2022, p.252; Wilcox & Wilcox, 1995, pp.139-151), 개별 양태 동사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에도 이루어졌다(Long, 1910, pp.16-18). Wilcox & Wilcox(1995, pp.139-151)은 Long(1910, pp.16-18)에서 제시한 미국 수어의 양태 동사(modal verb)를 중심으로 근원 양태(root modality)를 나타내는 강한 의무와 약한 의무의 [MUST]와 [SHOULD], 능력(ability)을 나타내는 [CAN]을 제시하였고 인식 양태의 가능성은 [POSSIBLE]로 나타낸다고 구분하였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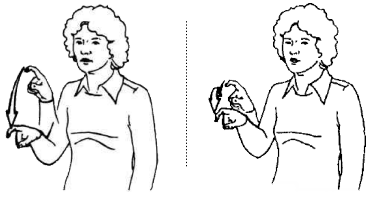
14) Wilcox & Wilcox(1995, p.144)는 미국 수어의 [FEEL], [SEEM], [OBVIOUS]도 인식 양태를 나타내며, 의도, 예상, 의지를 나타내는 [WILL]도 양태를 나타내는 것

[표 3] 미국 수어의 양태(Wilcox & Schaffer, 2006, pp.214-215)

<table>
<tr><td colspan="4">가능성</td></tr>
<tr><td rowspan="2">참여자 내적
가능성 [CAN]</td><td colspan="2">참여자 외적 가능성 [CAN]</td><td rowspan="2">인식 가능성
[POSSIBLE]</td></tr>
<tr><td>非당위 가능성</td><td>당위 가능성
[CAN]</td></tr>
<tr><td rowspan="2">참여자 내적
필연성 [MUST]</td><td>非당위 필연성
[SHOULD]</td><td>당위 필연성
[MUST]</td><td rowspan="2">인식 필연성
[SHOULD]</td></tr>
<tr><td colspan="2">참여자 외적 필연성 [MUST]</td></tr>
<tr><td colspan="4">필연성</td></tr>
</table>

그런데 Wilcox & Schaffer(2006, p.213)은 van der Auwera & Plungian(1998, p.82)의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수어의 양태에 대해 [표 3]과 같이 정리하면서 당위 양태의 의무는 [MUST], 당위 가능성은 [CAN], 비당위 필연성으로 의무보다 약한 권유(advisability)는 [SHOULD], 동적 양태의 필연성과 가능성도 각각 [MUST], [CAN]으로 표시하며, 인식 양태의 필연성은 [SHOULD], 가능성은 [POSSIBLE]이 나타낸다고 서술하였다(Wilcox & Schaffer, 2006, pp.214-215). 즉, 미국 수어는 크게 보면 근원 양태(동적 양태와 당위 양태)의 필연성과 가능성은 [MUST]와 [CAN]으로 표시하고, 인식 양태의 필연성과 가능성은 [SHOULD]와 [POSSIBLE]로 나타낸다.

(9) a.



[MUST] [SHOULD]

b. [BEFORE CLASS]주제 **MUST** LINEUP두손

으로 논의하였으나, Wilcox & Shaffer(2006, p.227)에서 [FEEL], [SEEM], [OBVIOUS]는 추론 증거성으로 분류하고 의도, 예상, 의지도 van der Auwera & Plungian(1998, p.82)의 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WILL]에 대해 더 이상 다루지 않았다.

"수업 전에 우리는 줄 서야 해요."

c. **MUST** WITH **MUST** CHILE **MUST** PRO.1
"난 칠리가 있어야 해요."

d. [LIBRARY HAVE DEAF LIFE]주제 **[SHOULD]**찌푸림/끄덕임
"도서관에 '농인 생활(Deaf Life)'이 있다고 확신해."

미국 수어에서 당위 양태의 의무(당위 필연성)는 (9b)의 [MUST]를 통해 나타내고 근원 양태의 필연성도 (9c)처럼 [MUST]로 표시한다(Shaffer, 2004, pp.183-184; Wilcox & Shaffer, 2006, pp.216-217).[15] 반면에 인식 양태의 필연성은 (9d)와 같이 눈썹 찌푸림과 고개 끄덕임의 비수지를 동반한 [SHOULD]로 표시한다(Wilcox & Shaffer, 2006, p.226).

(10) a. PRO.3 BUILD+PRO.3 [FUTURE]주제/손가락옮지락 DEVELOP **[FUTURE]**찌푸림/끄덕임
"앞으로는 그들이 그 지역을 개발할 거라 확신해요."

또한 찌푸림과 끄덕임의 [FUTURE]로 표시되는 인식적 미래가 강한 확실성을 표시하기도 한다(Wilcox & Shaffer, 2006, pp.227-228)

15) 미국 수어의 [MUST]는 프랑스 수어 [IL FAUT(필요하다)]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19세기 옛 프랑스 수어의 [IL FAUT]는 1세기에 땅을 향한 손가락이 '주장하다(insist)'를 나타내던 몸짓에서 유래하였다(Dodwell, 2000, p.36).


고대 로마의 몸짓 '주장하다' (Dodwell, 2000)


옛 프랑스 수어의 [IL FAUT] (Brouland, 1855)


프랑스 수어의 [IL FAUT] (Girod, 1997)


미국 수어의 [MUST] (Wilcox & Wilcox, 1995)

(11) a.



[CAN]



[POSSIBLE]

b. PRO.1 **CAN** LIFT-WEIGHT 100 POUNDS.
"나는 백 파운드도 들 수 있다."

c. BUT **CAN** LIVE WITHOUT TWO.
"하지만 (우리는) 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d. ... [DOUBT]$^{찌푸림/끄덕임}$ (휴지) (몸짓 "well") [POSSIBLE]^{끄덕임}
"... 의심스럽지만 가능할 것 같다."

또한 미국 수어는 동적 양태의 물리적 능력을 나타내는 가능성을 (11b)처럼 [CAN]으로 표시하며, 허락의 당위 양태도 (11c)의 [CAN]으로 나타낸다(Wilcox & Shaffer, 2006, pp.221-222). 하지만 인식 가능성은 머리 끄덕임을 동반한 [POSSIBLE]을 통해 표시한다(Shaffer, 2004, p.190).

일본 수어의 양태에 대한 연구에서 Matsuoka et al.(2022, p.161)은 양태를 가능성, 인식 양태, 증거성의 3가지로 구분하고 가능성은 [DECIDE/kimari/], [SHOULD/beki/], [IMAGINE/sozo/], [PLAN/yotei/], 인식 양태는 [REAL/honto/], [NO-IDEA/fumei/], [DIFFER-PE/chigau-pe/], 증거성은 [MEAN/imi/], [SEEM/yoo/]로 나타낸다고 정리하였다.

(12) a.



[DECIDE/kimari/]



[SHOULD/beki/]

b. MAN COME **DECIDE**
"그는 확실히 온다."

c. MAN COME **SHOULD**
"그는 올 것 같다. / 그는 와야 한다."

일본 수어에서 인식 양태는 (12b)의 [DECIDE/kimari/]로 확실성을 나타내고 (12c)의 [SHOULD/beki/]는 인식 양태의 개연성이나 당위 양태의 의무를 나타낼 수 있다(Matsuoka et al., 2022, pp.150-152).

(13) a. 
[IMAGINE/sozo/]


[NO-IDEA/fumei/]

b. MAN COME **IMAGINE**
"그는 올 가능성이 있다."

c. MAN COME **NO-IDEA**
"그가 올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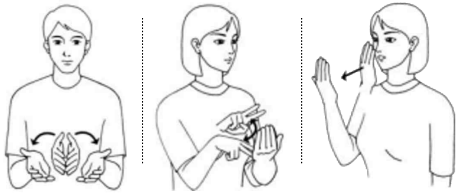
또한 일본 수어에서 인식 가능성은 (13b)의 [IMAGINE/sozo/]으로 표시하고, 50% 정도의 낮은 확신에 대해서는 (13c)의 [NO-IDEA/fumei/]로 표시한다 (Matsuoka et al., 2022, pp.152-155).

이처럼 미국 수어와 일본 수어에서 양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한국 수어의 양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2. 한국 수어의 양태

한국 수어에서 양태는 인식 양태와 관련된 [아마], [아니다], [가능(할 수 있다)], 당위 양태와 관련된 [법], [꼭], [필요], [허락] 등의 단어들이 언급되었으며, 수지 요소뿐만 아니라 표정과 머리 움직임 등 비수지 요소가 부가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윤병천·김칠관, 2022, p.254).

(14)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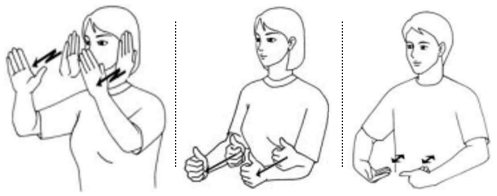


[책] [읽다] [가능]

"책을 읽을 수 있다."

한국 수어에서 동적 양태의 능력은 (14a)처럼 [가능(할 수 있다)]으로 표시하는데, 오른손의 끝이 위로 향하게 펴고 세운 손바닥을 입 앞에 댔다가 내밀며 입으로 '파'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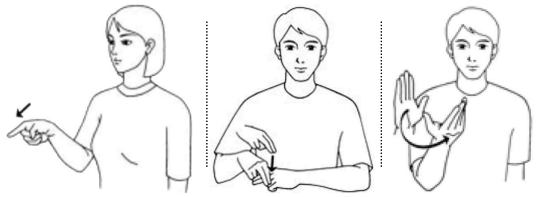
(15) a.



[공부] [열심] **[필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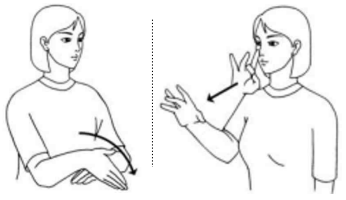
b.



[여기] [앉다] **[되다]**

"여기 앉아도 된다."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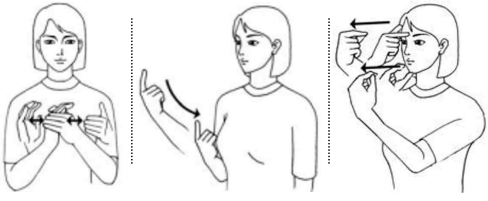
[늦다] **[안 되다]**

"늦으면 안 된다."

당위 양태의 의무(obligation)는 (15a)의 [필요]에 의해 나타내는데, 두 손을 구부려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끝으로 배 양쪽을 두 번 두드리는 것으로 표시한다. 좀 더 높은 필연성을 나타내는 [법]이 사용될 수도 있으며, [꼭]을 통해서도 의무를 나타낼 수 있다.[16] 또한 허락(permission)은 (15b)처럼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리는 [되다]로 나타내는데, [가능] 또는 [허락]으로도 표시한다. 한편 금지(prohibition)는 (15c)와 같이 오른손 중지(2지)와 엄지(5지)의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고 검지(1지)를 코 옆에 댔다가 밖으로 내리며 2지를 5지에 튕겨 펴며 '푸' 입모양을 하는 [안 되다]로 나타낸다. 그리고 [그만(하지 마)], [중지]를 통해 표현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금지의 의미이고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부정 명령의 화행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한국 수어의 당위 표현은 매우 다양하게 발달하였는데 의무, 허락, 금지의 하위 범주뿐만 아니라 각 범주별로 다양한 표현을 통해 양태 표현의 정도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16) a.



[친구] [오다] **[맞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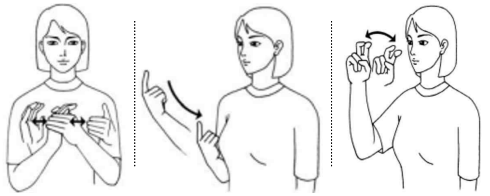
"친구가 오는 게 맞다."

16) 한편 [공공(절대)]을 통해 나타내는 의무도 있는데, "[지각] [공공] [벌금] [돈+주다](지각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와 같은 구성으로 표현한다.

17) 이처럼 한국 수어에서 당위 양태 표현이 다양하게 발달한 것은 사회적 규범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화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과정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 [친구] [오다] [맞다]뿐만 아니라 [친구] [맞다] [오다]와 같은 어순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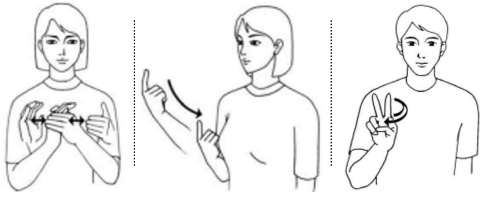
b.



[친구] [오다] **[아마]**

"친구가 올 것이다."

c.



[친구] [오다] **[둘 중 하나]**

"친구가 올 것 같다."

한국 수어에서 인식 양태의 확실성(certainty)은 (16a)처럼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이마로 향하게 하고, 왼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턱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내밀며 1·5지 끝을 맞대는 [맞다]와 입을 꽉 다무는 비수지 기호가 같이 사용된다.[19] 이와 유사하게 [확실하다]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개연성(probability)은 (16b)와 같이 눈을 가늘게 뜨고 끄덕이며 오른손을 오므리고 검지(1지)·중지(2지)를 펴서 구부려 얼굴 오른쪽 앞에서 앞뒤로 두 번 흔드는 [아마]로 나타낸다. 개연성은 의심스러움을 나타내는 비수지 기호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이보다 낮은 가능성(possibility)은 머리를 갸우뚱하고 눈을 가늘게 뜨면서 오른손의 검지(1지)와 중지(2지)만 벌려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세우고 손목을 좌우로 살짝 돌리는 동작을 2번 반복하는 [둘 중 하나(둘 중 어느 것)]로 50% 정도의 추정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논의된 한국 수어의 양태 표현을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당위 양태에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식 양태에도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등급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19) 두 주먹의 검지(1지)를 펴서 끝을 양쪽 눈 밑에 댔다가 떼면서 두 주먹을 힘주어 펴는 [확실하다]로 나타내는데, 이때 눈을 크게 하고 입을 꽉 다무는 비수지 기호가 같이 사용된다. [친구] [오다] [확실]도 가능하지만, [친구]와 [오다] 사이에 [확실]이 위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표 4] 한국 수어의 양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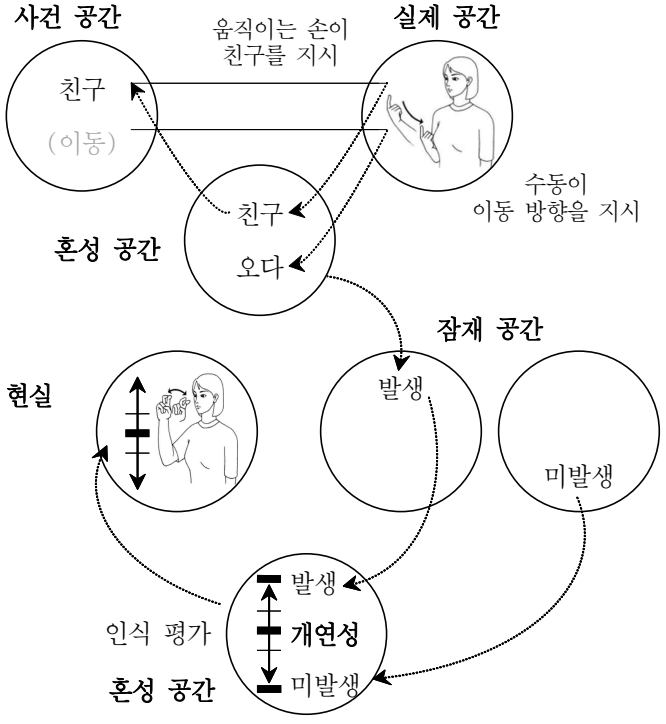
양태 유형	등급	수지 기호	비수지 기호	기타
동적 양태	능력	[가능]	'파' 입모양	
당위 양태	의무	[필요]		[법], [꼭]
	허락	[되다]		[허락], [가능]
	금지	[안 되다]	'푸' 입모양	
인식 양태	확실성	[맞다]	입 꽉 다뭄, 눈 크게 뜸	[확실하다]
	개연성	[아마]	고개 끄덕, 눈 가늘게	
	가능성	[둘 중 하나]	고개 갸우뚱, 눈 가늘게	

4.3. 한국 수어의 양태와 개념적 혼성

앞의 [그림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개념적 혼성은 총칭 공간과 두 입력 공간 사이의 횡단을 통해 혼성 공간에서 발현되는 의미를 구성하며(Fauconnier & Turner, 2002, p.46), [그림 3]처럼 수어가 발화되는 상황에서는 사건 공간과 실제 공간이라는 두 공간 사이의 사상을 통해 혼성 공간에 선택적으로 투사된 의미가 발현된다고 분석하였다(Liddell, 1998, p.293; Armstrong, 2011, p.44). 그리고 [그림 6~8]을 통해 양태 표현을 이해하는 과정은 개념적 혼성을 통해 명제와 화자의 판단이 혼성 공간에서 의미를 발현하는 것으로 분석됨을 살펴보았다(Radden & Dirven, 2007, pp.235-257). 동적 양태는 초기 공간과 현재 공간에서 투사된 혼성 공간을 통해 평가된 등급을 나타내고, 인식 양태는 현실 공간과 잠재 공간에서 투사된 혼성 공간을 통해 인식 평가의 척도를 드러내며, 당위 양태는 이보다 더 복잡하여 두 현실 공간과 평가 공간, 태도 공간 사이의 개념적 혼성을 통해 지시 화행에 대한 평가 척도가 표현된다. 즉, 동적 양태는 인식 양태와 유사한 정신 공간 구축을 통해 개념적 혼성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당위 양태는 매우 복잡한 정신 공간 구축을 통해 양태 의미를 표현하고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수어의 양태 표현에 대한 개념적 혼성 과정에서 동적 양태는 이와 유사한 인식 양태를 통해 그 이해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적 양태의 초기 공간과 현재 공간은 인식 양태의 현실 공간 및 잠재 공간과 대응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인식 양태와 당위 양태의 개념적 혼성을 통해 한국 수어의 양태 표현이 이해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식 양태는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데, 한국 수어에서 조음 공간(실제 공간)에서 표현된 기호는 개념적 혼성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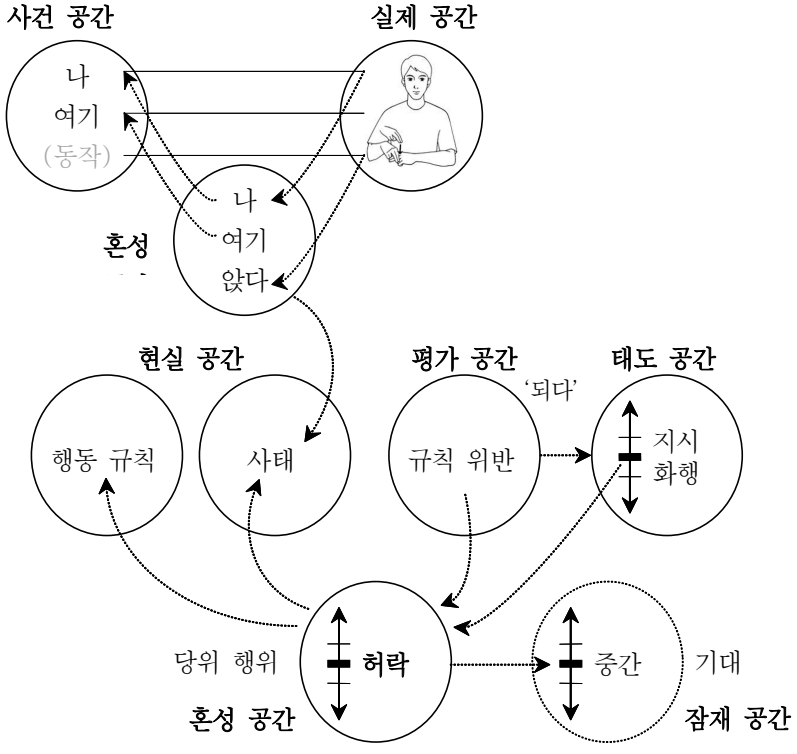


[그림 9] 인식 양태 [친구 오다 아마]의 개념적 혼성

예를 들어 (16b)와 같이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문장인 [친구 오다 아마]는 [그림 9]와 같은 개념적 혼성을 통해 의미가 발현된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친구가 오다'라는 명제를 구성하기 위해 사건 공간에서 [친구]라는 요소가 설정되고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는 손의 손가락을 통해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두 공간 사이의 사상을 통해 혼성 공간에서 [친구 오다]라는 사태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명제는 인식 평가를 위해 사태 발생이라는 잠재 공간과 연결되고 사태 미발생의 잠재 공간과 함께 [아마]로 표현된 판단 증거를 나타내는 현실 공간의 정보를 이용하여 혼성 공간에

서 중간 정도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한편 당위 양태는 사회적 규범 등을 바탕으로 화자가 판단하는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한국 수어의 당위 양태 표현도 먼저 사건 공간과 실제 공간이라는 정신 공간의 구축을 통해 이해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10] 당위 양태 [여기 앉다 되다]의 개념적 혼성

또한 (15b)의 [여기 앉다 되다]처럼 문장은 [그림 10]과 같은 개념적 혼성을 통해 허락의 당위 양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수어의 당위 양태 표현도 두 단계의 개념적 혼성을 거쳐 이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식 양태와 마찬가지로 사건 공간과 실제 공간 사이의 사상에 의한 혼성을 통해 [여기 앉다]라는 명제를 구성하게 되고 이 명제는 행동 규칙을 나타내는 현실 공간과 함께 사태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현실 공간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 두

현실 공간은 [되다]에 의해 평가된 척도를 제공하는 평가 공간과 태도 공간과 함께 혼성되어 허락의 당위 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이는 잠재 공간에서 중간 정도의 발생 가능성을 기대하는 의미와 연결된다.

이와 같이 개념적 혼성 이론을 통해 한국 수어의 양태 표현을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수지 기호와 비수지 기호 및 문맥 정보의 혼성뿐만 아니라 명제 외부에 결합한 화자의 판단과도 개념적 혼성을 통해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정리된다.

5. 나가기

한국 수어는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동적 양태, 당위 양태, 인식 양태에 해당하는 문법화된 양태 표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문말에 표시되는 특성을 갖는다. 특히 당위 양태는 의무, 허락, 금지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발달하였으며 인식 양태는 등급성이라는 양태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도성을 다양한 등급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에서 발화되는 조음 특성을 갖는 수어는 정신 공간 사이의 사상을 통해 실제 표현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채워 가는 개념적 혼성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데(Armstrong, 2011, p.44), 특히 명제 외부에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양태 표현은 도상성을 바탕으로 명제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개념적 혼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 수어의 동적 양태, 당위 양태, 인식 양태에 대한 표현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이해 과정을 개념적 혼성 이론을 통해 살펴 보았다. 다만 한국 수어의 양태에 대한 개별 표현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동환 (2002).「개념적 혼성 이론 : 인지언어학과 의미구성」. 서울 : 박이정.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 (2019).「표준 국어문법론 (전면 개정판)」. 서울 : 한국문화사.

박재연 (2006).「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파주 : 태학사.

박진호 (2011). 시제, 상, 양태.「국어학」, 60권, 289~322.

윤병천·김칠관 (2022).「한국수화언어학입문」. 파주 : 양서원.

임동훈 (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한국어의미학」26권, 211~249.

임지룡 (2024). 수어의 인지언어학적 탐구.「한국사회언어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2024년 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8~32.

전문이 (2020). 한국어 양태의 정형성 및 유형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해권 (2018). 당위 양태에 대한 확률적 의미 지도 -병렬 번역 텍스트를 바탕으로-.「언어와 언어학」, 78권, 127~148. DOI: dx.doi.org/10.20865/20187806

仁田義雄(닛타 요시오, Nitta, Y) (1989). 現代日本語文のモダリティの体系と構造(gendai nihongobun no modarithi no taikei to kōzō, “The system and structure of modality of modern Japanese text”). 仁田義雄 & 益岡隆志 (Yoshio Nitta & Takashi Masuoka) (Eds.), *「日本語のモダリティ (nihongono modarithi, “Modality of Japanese”)」,* (pp.1-56). 東京:くろしお出版(Tokyo: Kuroshio Shuppan).

仁田義雄(닛타 요시오, Nitta, Y) (1999), モダリティを求めて(modarithi o motomete, “In search of modality”), *「言語(Gengo, “Language”)」, 28*(6), 34-44.

Aikhenvald, A. I. (2004).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rmstrong, J. A. W. (2011). Conceptual blend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s. Ph.D.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Muncie, IN.

Brouland, J. (1855). *Langage mimique: Spécimen d’un dictionnaire des signes*. Washington, DC: Gallaudet Archives.

Bybee, J.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Bybee, J. L., Perkins, R.,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ristofaro, S. (2005). *Subordi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odwell, C. R. (2000). *Anglo-Saxon gestures and the Roman st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dis, P. G. (2004). Body partitioning and real space blends. *Cognitive Linguistics*, *15*(2), 223–238.

Evans. V. & Green, M. (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Fauconnier, G. (1997). *Mappings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uconnier, G. & Turner, M. (2002). *The way we think.* New York, NY: Basic Books.

Fillmore, C. J. (1968). The Case for Case. In Emmon Bach & Robert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pp.1-88). London: Holt, Rinehart & Wilston.

Gibbs, R. W. (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rod, M. (1997). *La langue des signes: Tome 2. Dictionnaire bilingue élémentaire*. Vincennes: International Visual Theatre.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MI: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MI: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ngacker, R. W.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Liddell, S. K. (1995). Real, Surrogate, and token space: Grammatical consequences in ASL. In Karen Emmorey & Judy Reilly (Eds.), *Language, gesture, and space* (pp.19-4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iddell, S. K. (1998). Grounded blends, gestures, and conceptual shifts. *Cognitive Linguistics, 9*(3), 283-314.

Long, J. S. (1910). *The sign language: A manual of signs*. Washington, DC:

Gallaudet College Press.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tsuoka, K. (2006). *A Study of proposition and modality focusing on epistemic modals in the Japanese language.* Ph.D. Dissert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Matsuoka, K., Yano, U., & Maegawa, K. (2022). Epistemic modal verbs and negation in Japanese Sign Language. In Kazumi Matsuoka, Onno Crasborn & Marie Coppola (Eds.), *East Asian Sign Linguistics* (pp.137-167). Berlin, De Gruyter Mouton.

Nuyts, J. (2016). Analyses of the modal meanings. In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 (Eds.), *The Oxford Handbook of Modality and Mood* (pp.31-4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Nuyts, J. & van der Auwera, J. (2016). *The Oxford handbook of modality and m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dden, G. & Dirven, R. (2007). *Cognitive English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Shaffer, B. (2004). Information ordering and speaker subjectivity: Modality in ASL. *Cognitive Linguistics, 15*(2), 175-195

Stockwell, P. (2002). *Cognitive poe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Taub, S. F. (2001). *Language from the body: Iconicity and metaphor in American Sig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gerer, F. & Schmid, H. (200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2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van der Auwera, J. & Plungian, V. A. (1998).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1), 79-124.

Wilcox, P. & Wilcox, S. (1995). The gestural expression of modality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Joan Bybee & Suazanne Fleischman (Eds.),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pp.135–162). Amsterdam: Benjamins.

Wilcox, S. & Shaffer. B. (2006). Modality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Frawley William (Eds.), *The expression of modality,* (pp.207–237). Berlin: Mouton de Gruyter.

정해권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64
조선대학교 글로벌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조교수
전화: (062) 620-6182
이메일: haegwon@chosun.ac.kr

논문접수: 2024년 5월 13일
수정완료: 2024년 6월 14일
게재확정: 2024년 6월 28일